
2020년 제53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12. 25. ~ 12. 3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방송일자	2020. 12. 26.	시청률	0.003

【총 평】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 풀꽃 시인 나태주’는 대중적인 시어로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칠십 중반 노(老)시인의 시 세계와 행복을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4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50년간 이어온 창작활동으로 다져진 시인의 내공과 철학이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묻어났고, 40분여의 방송 시간이 한 편의 시를 읽는 듯 했다. 또한, 시가 주는 위로를 통해 쓸쓸한 세밑을 따뜻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어 시청자들에게 짙은 여운을 남겼다. “아픈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소박하지만 강인하게 살아내려는 삶의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1971년 서울신문의 신춘문예에 당선된 지 50년을 맞이한 시인은 등단 50년을 맞은 소감, 박목월 선생님과 인연, 어머니가 아들의 첫 시집을 700원에 사신 이야기, 시인의 겸손이 주는 시 세계, 풀꽃 시를 처음 쓰게 됐던 배경, 43년과 교직 생활, 시의 역할과 시인의 책임, 좋은 시란 무엇인지, 시인으로 사는 삶이 주는 행복 등을 털어놓았는데 그의 소박한 삶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편의 시 쓰기’ 강연 현장을 찾아 강연을 짧게 소개하고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 나태주시인의 시가 어떤 의미로 위로를 주는지 독자들의 인터뷰도 들어보았다. 이 밖에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글쓰기 강좌를 위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고, 거절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그의 신념 때문이라고 했다. 또 시인은 ‘짧게, 쉽게, 단순하게, 임팩트 있게’ 시를 쓰려 노력한다고 했다.

나태주시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하며, 언제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를 썼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짧지만 사람 냄새가 난다. 시인은 “좋은 시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악수가 되고 어깨동무가 되고 위로의 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또, “인생은 결코 나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의외로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이었다. 인간은 이웃과 더불어 인간이라는 말로 정의한 부분도 시인의 시 자체를 설명하는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이어서 기억에 남았다.

코로나19 재난 시대에 마스크의 바깥쪽은 나를 위한 부분이고, 마스크의 안쪽은 너를 위한 배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시가 이 역할을 한다고 했다.

나태주시인의 시를 통해 삶을 통찰하는 혜안을 공유할 수 있었다. 행복이란 것은 이미 내안에, 내 가족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주변을 행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호소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행복을 규정하는 것 보다 설득력 있었다.

프로그램	6.25전쟁 특별기획 기억 1부-우리는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방송일자	2020. 12. 26.	시청률	0.056

【총 평】

KTV 6.25전쟁 특별기획 '기억 1부, 우리는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는 7개국 15개 도시에서 만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아픔과 한국 사랑을 담았다. 세계인의 시각에서 한국 전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한국을 잊지 않았다는 노병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인터뷰, 각국 기념관 관계자들과 노병의 가족들의 감사와 애도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전체적으로 인터뷰 구성이 촘촘하였고, 역사적 사건과 맥락에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연결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노병들의 자유 수호 정신과 슬픈 고백들을 균형 있게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구성 및 내용】

한국전쟁에 참전한 해외 16개국의 용사들은 자신의 조국도 아니면서 낯선 나라에서 싸우다 죽고 다치고 고생한 당사자들이다. 국가보훈처가 이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을 초대해 참전 용사들에게 전쟁 참전의 명분과 자금을 심어줬고 우리에게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주로 참전 용사들의 근황을 통해 그들이 한국의 발전에 얼마나 고마워하고 자긍심을 느끼는지, 또 그들의 한국사랑을 볼 수 있어서 놀라웠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세계 각지의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근황을 취재하고 그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과 대한민국에 대한 추억을 들어보았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가평 전투를 치른 네 명의 캐나다 출신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강하게 던진 것 같다. 또,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알고 있을지언정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대목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져 가슴을 울렸다. 용산에 위치한 전쟁 기념관에 초대받은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생전에 할아버지들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전쟁에서 만난 고아 이야기와 전쟁에서 돌아온 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을 생각해서 음식 낭비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주었다.

故 윌리엄 스피크만은 6.25 전쟁 이후 65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말한 영상과 실제 유골이 한국에 묻힌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연출되었다. '죽음도 막지 못한 용사의 귀환'이라고 정리가 여운으로 남았다.

항상 자신의 집에 태극기를 다는 참전 용사, 평생 무궁화를 곁에 두었다는 참전 간호장교, 손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훈장을 받고 선물로 받은 손목시계를 자랑하는 참전 용사들을 보면서 이들이 또 누구에겐가 우리나라를 열심히 알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참전 용사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준 한국, 세계 속에 우뚝 서준 한국이 자랑스러웠고 그로 인해 젊은 날 자신들의 희생의 명분을 찾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2. 26.	시청률	0.031

【총 평】

2020년 격변의 한반도를 돌아보는 연말특집으로 문재인정부 이후 남북관계 중요 이슈를 총정리하고 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새 해에는 평화무드로 전환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 롤러코스터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이어진 남북관계의 희로애락을 그래프로 요약해 올해 한반도 정세를 한 눈에 다시 돌아보는 구성이 몰입감을 높였다.

또, 2021년 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출연자에게 들어보고 낯익은 인사들로부터 소망을 들어보며, 새해 남북관계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특히, 새해 도쿄올림픽, 9월 남북 UN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등의 호재로 남북관계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출연자의 희망적인 전망이 고무적으로 느껴졌다.

【구성 및 내용】

연말특집으로 2020년 한해와 지난 3년간의 한반도 정세, 2018~2019년 한반도의 인상적인 사건, 문재인 정부의 3년 등에 대해 KTV 구성원들의 비대면 인터뷰를 비롯하여 전문가 출연진의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올 한해 무엇보다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19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제재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셀프제재까지 더해졌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가 평화지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했으나 남북의 방역체계 강화로 인해 오히려 얼어붙어버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위로와 응원이 상호 이어지기도 했다. 충격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해양수산부 직원에 대한 총격 등이 있다. 서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었고, 해수부 직원 총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바른 시간 내에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2018~2019년의 인상적인 한반도의 사건은 평창올림픽 남북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연이은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시민 연설, 남북정상 최초 백두산 정상 등반 등이 주요 사건으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의 3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희로애락 그래프를 보면 2018년의 경우 평창동계 올림픽을 통해 분위기가 반전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고조되며 한반도의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아쉬운 성과로 분위기가 다시 하락했고 이런 분위기를 뒤집기 위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정상회담이 깜짝 성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연락사무소 폭파 등 오랜 고착상황이 이어졌다. 내년 도쿄 올림픽으로 다시 한번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2021년 UN에서 남북이 한 목소리를 내며, 소통하는 희망적인 소식들을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2. 27.	시청률	0.000

【총 평】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해 각 지역 지자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뉴딜 계획을 소개하는 순서로 오늘은 경기도와 대전의 계획이 소개됐다. 경기도는 반월·시화공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혁신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경기도는 미래성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의 또 하나의 뉴딜 전략은 '공공배달 앱'이다.

대전광역시의 뉴딜 계획은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대덕특구의 리노베이션이 핵심이다. 오는 24년 대덕특구 설치 50년이 될 때까지 대덕특구의 연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지금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구성 및 내용】

정부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6대 시도의 지역 균형 뉴딜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찾아 본 시간이었다. 특히, 경기도, 대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중,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반월·시화산업단지와 대전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계획을 살펴보았다.

'지역균형 뉴딜 기획' 시리즈로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를 다뤘고, 낙후된 산업 특구 도시를 혁신으로 만들기 위한 길을 찾아보았다. 디지털과 그린뉴딜 기반으로 한 경기 반월·시화 국가 산업단지와 대전지역의 트램 제2의 르네상스 계획을 소개했다.

경기도 뉴딜사업은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사업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이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현재 시범 운영중인 공공배달앱 서비스의 장점을 소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했다.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6~15%에 달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배달앱'은 이미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21개 시군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된다. 특히,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쉬웠고 민간 배달앱과의 차이점을 알려주었고, 공공배달앱의 장점이 강조되었다.

대전광역시 뉴딜사업은 대덕특구 활용방안부터 개방형 창업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까지 두루 살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도심내 균형발전의 취지를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기본으로 한 서비스다 보니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라고 부분에서 공감을 샀다.

대전광역시의 또 다른 뉴딜 사업은 도심 속 물길 프로젝트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인 '트램'이다. 이들 사업은 도심내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로그램	법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2. 27.	시청률	0.036

【총 평】

최근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배우자의 배신-외도 이혼소송’의 사례와 해결방안, 주의점 등을 명쾌하게 알려주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증거를 포착하며 협의 이혼시 주의점 등 상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외도에 의한 부부 간 갈등 그리고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등 생소한 법적 용어를 접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지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또,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를 포함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의미 있었다. 이혼소송의 시효와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알았을 경우에 유리하다는 점과 폭로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조언 등을 해주었다.

【구성 및 내용】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 중 첫 번째로 적혀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이혼사유다. 최근 법원에서 간통제가 폐지된 이후 외도의 범위를 폭 넓게 해석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귀 기울일만한 정보였다. 상간에 의한 외도를 다루는 소송과정이 워낙 까다로워져서 더욱 엄격하게 증거를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법원에서 간통죄 폐지 후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의 고백, 카드 명세서만으로도 이혼사유를 충족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파탄주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전한 것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좋은 참고가 되었다. 파탄주의가 채택된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간통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공감 가는 대목이 많았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은 가능하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양육비와 양육권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무엇이든 물어볼 법’은 1층에서 장사하는 식당에서 건물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문제로 식당이 별도로 계약하지 않은 이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주차 여부에 따라 매출에 변동이 있고, 외부 간판을 가린다면 영업방해를 주장할 경우 건물주와 함께 따져봐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2. 27.	시청률	0.066

【총 평】

전북 남원시 지리산골 산내마을에서 직조 수공예 기술자로 활동 중인 귀촌 14년 차 주인공의 '변두리 시골살이 14년-여기 오길 잘했다'를 방송했다. 주인공은 좋아하는 직조공방에서 공예품을 만들고, 시골 책방을 운영하면서 이웃들과 지리산 자락을 돌고, 겨울철에는 뒷마루에서 책을 읽으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시골마을의 돌담길을 좋아하고 베틀로 끊임없이 직조를 짜며 베틀의 오래된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며 천천히 흐르는 대로 자신의 삶의 속도를 맞춰가는 주인공의 소확행 삶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주인공은 옛날 전통방식을 그대로 베틀을 사용하여 직조를 짜내는 직조인으로 시간 들이는 공예에 비해 결과물은 더디지만 온기와 정성이 깃든 300개 실로 풀어내는 직조 작업에 푹 빠져 살고 있다. 특히, 대안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눔, 다른 듯 같은 부부의 인생 방향, 직조 공예를 이웃과 나누며 사는 이유 등 화려한 직조와 달리 수수함을 추구하는 주인공의 알콩달콩 변두리 시골생활의 단단함을 잘 조명하였다.

【구성 및 내용】

지리산 자락 남원시 산내면에 자리잡은 주인공은 직조공방과 시골 책방을 운영하는 귀농 14년차다. 90년된 한옥을 목수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개조하고 여유로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귀농은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자부한다.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에 접한 직조의 매력에 빠져 베틀 짜는 할머니로 늙고 싶다는 소망으로 공방을 열고, 그림책을 좋아해 시골마을에 책방까지 열었지만 어느 것도 돈을 버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시골의 복합문화공간을 꿈꾸고 있다.

주인공은 19살에 서울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 할 무렵인 29살에 남원에 내려와 90년 된 낡은 옛집을 고쳐 만든 민박집을 운영하다 만난 남편과 결혼하면서 다시 도시생활을 하다가 39살에 다시 귀촌한 선택을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한옥집에서 직조공방을 소개했는데,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큰 베틀과 실제로 주인공이 여기에 앉아 직조를 하는 모습이 신기했고, 그 결과물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도 꽤 컸다. 한 달에 한번은 생태기행, 일주일에 한번은 동네를 산책하며 자연 속에서 잘 놀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 '자연놀이터, 그래'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지리산 산행에서는 둘레길을 걸으며 지리산 정상까지 가는 소모임을 통해 지리산의 겨울 풍경도 소개했다. 이 밖에 주인공의 부모님이 방문해서 겨우내 쓸 장작을 준비하거나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소소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장면이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 주인공의 아버지가 목수 출신이라 집을 수리해주어 한옥이 더욱 빛을 발하는 듯했다. 부모 입장에서 귀촌을 반대했던 심경 또한 다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딸의 모습이 아주 행복해 보여서 응원하고 싶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특별생방송 '위기를 넘어 희망의 대한민국'		
방송일자	2020. 12. 29.	시청률	0.027

【총 평】

KTV 특별생방송 '위기를 넘어 희망의 대한민국'은 2020년 한해를 결산하며, 방역과 경제난 극복을 돌아보고 새해 희망을 제시한 기획이 탁월했다. '위기와 도전', '변화와 희망' 그리고 '생존'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내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효과적인 틀이 되어, 복잡할 수도 있는 국내외 이슈를 심플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1부에서 4부까지 기획시리즈로 '외교 총결산', '한국경제, 미래를 말한다.', '위기를 넘어 희망 대한민국' 등으로 방송해 국민역량을 결집시키고 국난극복을 통해 새해 대전환 '한국판 뉴딜'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는 의제설정이 뛰어났다. 최대환 진행자는 이형일 기재부국장과 화상연결에서 '저희나라'를 '우리나라'로 바로잡아 주는 등 순발력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실물경제, 금융, 내수, 수출의 동시타격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로서 K-방역의 성과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은 공동체 회복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별생방송 '위기를 넘어 희망의 대한민국'은 2020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코로나 관련 핫이슈를 점검하고 위기를 극복해 새해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한, '위기와 도전' '변화와 희망' '생존' 등 3부로 나누어 점검하고 분석한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코로나 위기를 방역과 경제지원으로 극복한 위기와 도전을 되돌아보고 미국 대통령 교체로 인한 변화와 희망적 요소를 점검 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생존전략을 희망적으로 분석했다.

특별 생방송중에 긴급 연결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더나CEO와의 통화에서 2천만명분 백신을 2분기부터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백신문제가 핫이슈이고 코로나 방역을 소재로 방송하는 점과도 부합돼 제작의도를 잘 살렸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한국판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산업을 단순히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경제가 아닌 선도형 경제로 변모하는 대전환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밖에 K-방역에 취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 한국판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과제라는 출연자의 지적이 설득력을 높였다.

2020년을 빛낸 K-컬처 부분도 언급되었는데, 아카데미상 4관왕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국민들에게 희망의 축포를 쏘아올린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 코로나 블루를 전세계적으로 치유했던 BTS 활약도 소개되었다.